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1 완경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4월 21일 목요일 (음 3월 15일) 제154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새누리 총선 패배... 당정 정책 독주 '급제동'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될까

야권 "중앙정부 책임" 주장
교육감 목소리 커질 듯
정동영 등 당선인들도
정부 부담 관철시킬 듯

4·13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정부·여당의 정책 독주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여소야대 정치 지형도가 바뀌면서 야당의 '누리과정은 중앙정부 책임'이라는 약속과 맞물려, 이에 대한 시·도교육감들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4.13 총선 후 첫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20일 인천 하버파크 호텔에서 12개 시·도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경북·울산·제주·부산을 제외하고 17개 시·도교육감 가운데 대구·경북·울산·제주·부산을 제외하고 12개 시·도교육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전액 국고 지원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등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풀기 위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여·야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도 제안했다.

교육감들은 부족한 재원을 예비비에서 우선 지원해 보육대란을 막자는 데 뜻을 모으고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지방교육정책 특별회계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총선 전 정부·여당은 국고지원 없이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전액 편성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감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해 지방교육 자치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총선 패배로 새누리당 지도부가 와해되면서 친·박 간 계파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새누리당의 개입휴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야당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법안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이 같은 계획은 물거품 될 공산이 크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한목소리로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만 0~5세 가정양육수당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국고 부담'을 제시했고 국민의당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으로 누리과정 국가책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새누리당 한 석을 제외하고 국민의당과 더민주당으로 재편된 전북 또한 더욱 적극적으로 누리과정 싸움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의당 정동영 당선인은 '누리과정 무상 보육제도 실현'을, 같은 당 안호영 당선인 역시 '누리과정 100% 국가책임 교육'과 '농촌살리기 및 지역특화교육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때문에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야권 주도로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부담을 관철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국고 예비비 등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인상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민형 기자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 완료 10년

여의도 55배 면적 육지로 탈바꿈

현재 159.6km²의 땅 노출
관광래저·농생명부지
80%대 드러나 가장 넓어
도 SOC 사업도 '활력'
용지 매립 개발 과제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바닷물로 잠겨 있던 새만금에 여의도 면적의 55배에 달하는 육지가 드러났다.

지난 1991년 11월, 새만금에 첫 삽을 뜬 후로 25년, 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지난 2006년 4월부터 꼭 10년만의 일이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된지 10년이 되는 21일 기준, 새만금 일대에 159.6km²의 땅이 노출됐다.

산업단지와 농업용지 조성을 위해 방조제 공사와 매립공사를 꾸준히 벌인 결과, 담수호를 제외한 전체 용지 291km² 중 55%에 해당하는 면적이 드러난 것이다.

노출률로 보자면 관광래저용지가 88%이고 농생명부지가 80%로 가장 넓고 산업연구부지 41%, 국제협력부지 27%, 생태환경부지 4% 등이다.

새만금 방조제 건설은 새만금 사업을 위해 최우선 진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지난 1991년 11월 첫 삽을 뜬 이후, 오늘로부터 10년 전인 2006년 4월 물막이 공사가 완료됐다.

완성된 새만금 방조제의 길이는 33.9km로 네덜란드의 주다치 방조



바닷물로 잠겨 있던 새만금에 넓은 면적의 육지가 드러났다. 사진은 전북도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이 지난 2013년 8월 22일 공개한 새만금 노출부지 항공사진.

제(32.5km)보다 1.4km 더 길어 지난 2010년 8월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방조제 완성 후 바닷물에 잠긴 새만금의 면적은 총 409km²였다. 그 중 담수호 지역(118km²)을 제외하면 매립지는 총 291km²에 이른다. 이 매립지는 앞으로 농생명용지(94.3km²), 국제협력용지(52.0km²), 환경생태용지(42.0km²), 산업연구용지(41.7km²), 관광래저용지(36.8km²), 배후도사용지(10.0km²) 등으로 조성될 계획에 있다.

물에 잠긴 용지가 드러남에 따라 SOC 사업도 활력을 띠고 있다. 국제무역의 허브 조성을 위한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는 올해 6월 준

공을 앞두고 있다. 또한 신항만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를 연결해 줄 내부 핵심 간선도로인 동서2축 도로도 2015년 11월 착공된 후 매일 20m 이상 조성 중이다.

반면 순조롭지 못한 부분도 있다. 우선 새만금 기본계획에는 2017년까지 전체면적의 45%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새만금 용지 조성은 농업용지와 산업용지 중심으로 34%에 불과하다. 또한 새만금은 전체 용지의 53.6%가 민자로 개발되어야 하나 대규모 해상매립사업의 위험부담 상 민간투자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도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민자 촉발을 위한 용지 매립을 선도 사업으로 삼아 국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중 경제협력단지 및 산업협력단지 조성과 규제프리존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도 최재용 새만금사업추진단장은 "도는 앞으로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과 협력을 통해 여러 현안 해결과 문제들을 극복하고 새만금이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경제특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 매일 INDEX

2면 봄나들이하러 전북으로

계절의 여왕 봄이 찾아왔다. 본격적인 나들이의 계절이다. 이에 전북도에는 다채로운 축제 등이 이어지고 있다.

6면 익산·부안국토청 손 맞잡다

익산국토청과 부안국토청이 관할권 경계 지역 인근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기업 구조조정·구조개혁 '급물살'

유일호 부총리 발언에 따른 화답으로 2야 대표 동의

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첫 화답은 김 대표였다. 김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규모 실업 대비'를 전제로 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이제는 이제까지 기업 구조조정 등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거나 이에 언급을 꺼렸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

다. '경제 발목잡는 야당'이라는 프레임을 탈피하면서 '경제살리기' 정당이란 이미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안철수 대표 역시 이날 기자들을 만나 "박근혜 정부에서 미시적인 구조 조정 정도가 아니고 거시적 관점에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지금 이대로 가면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 질 것"이라며 "적당한 기업 하나 하나의 구조조정도 필요하지만, 그 차원을 넘어 구조개혁이 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구조개혁의 일부 부분"이라며 "지난해 대상 기업을 선정한 바도 있고, 진행이 어느정도 되고 있다.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나와, 영화 보자

고사동 영화의거리 내 옥토주차장 : 전주라운지 야외상영장

2016. 4. 29 - 5. 7 매일 밤 8:00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 야외상영 안내

Jeonju Int'l. Film Festival

4. 29(금) 소콜라 Monsieur Chocolat



감독_ 로슈디 켈 Roschdy ZEM France | 2016 | 119min

5. 2(월) 천공의 벌 The Big Bee



감독_ 츠츠미 유키히코 TSUTSUMI Yukihiko Japan | 2015 | 136min

5. 5(목) 미국에서 온 모리스 Morris from America



감독_ 채드 하티건 Chad HARTIGAN Germany, USA | 2016 | 89min

4. 30(토) 동주 Dongju: The Portrait of A Poet



감독_ 이준익 LEE Joonik Korea | 2015 | 110min

5. 3(화) 리브어게인 When I My Life Over Again



감독_ 로버트 에드워즈 Robert EDWARDS USA | 2015 | 98min

5. 6(금) 선착순 무료입장 C&M 착한 콘서트 C&M Concert



MC 김그림 라인업 퓨전밴드 홀·뷰렛·크라임넷·여자여자·씨소·큐티엘·놀자

5. 1(일) 카이: 겨울 호수의 전설 KAI



감독_ 이상강 LEE Sung-gang Korea | 2016 | 96min

5. 4(수) 하이디 Heidi



감독_ 알렉스 스포너 Alain GSPONER Germany, Switzerland | 2015 | 111min

5. 7(토) 무료상영 폐막식 |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디지털 리마스터링 Closing Ceremony | Die Bad: Digital Remastering



감독_ 류승완 RYO Seungwan Korea | 2016 | 92min